

## “방재시험연구소를 견학하고 나서”

이 무 성  
(대전 MBC 시설담당부장)

오늘날과 같은 고도의 성장 속도로 살아가는 생활 공간은 고층 건물·단독층·지하층 등 우리 인간의 활동이 미치지 않는 공간이 없다. 에너지 사용 역시 다양하다. 전기·가스·유류·인화성이 강한 에너지의 사용에서 오는 편리함에 앞서 위험 부담 역시 피할 수가 없다. 우리 나라도 언제부터인가 각종 보험 제도가 생활권 속에 서구식으로 자리 잡혀 가고 있다. 특히 한국화재보험협회와는 더욱이 밀접한 공존관계를 배제할 수 없다.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한 안전 점검, 피해로부터 보상해주는 화재보험은 구세주 격이다.

93년 11월 16일. 한국화재보험협회 대전지부에서 실시하는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에 위치한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소 견학 초청을 받아 대전역 광장에서 출발 (09:30~18:00)을 하였다. 협회 대전지부에서 제공하는 따끈한 꿀차 한잔을 마시며, 임직원의 친절한 전송을 뒤로 하고 방재시험연구소로 향했다.

정오가 다 된 시간에 방재시험연구소에 도착을 했다. 먼저 잘 정돈된 연구소 주변 조경, 그리고 공간의 조화를 이룬 건물 등 속된 말로 경관 좋은 명당(?)이란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내부를 들어서면서도 잘 정돈된 시험시설에 눈길이 간다.

연구소 측의 요약된 견학 일정에 의해 사전 지식을 위한 간단한



시청각 견학을 마치고 화재 기초 시험과 방염 성능 시험실, 건축 재료에 대한 연소 시험 연구실, 경보 시험실, 건축 부재에 대한 방·내화 시험실, 건설 품질 시험실 및 소화시험실 등 시험연구소 시설을 돌아보았다. 십수년간 방화관리 업무를 수행해 오던 나는 연구실을 접할 때마다 ‘우물안 개구리식 업무에 임했구나’하는 반성과 함께 자신감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실감나게 하였다. 또한 각 연구실마다 연구요원의 시험결과 소개는 자신감에 차 있다. 연구실의 새로운 방재 시설을 접할 때마다 방화관리 업무의 실무자로서 모든 방재 시설에 욕심이 생긴다. 직장에서 형식적으로 방재 시설을 보아오며 운영하던 방화관리 업무를 시험연구소에서의 연구하면서 시험된 시설을 미분학적으로 견학한 것은 나에게서는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짧은 시간이었으나 연구실을 거의 다 견학을 하였다. 기억에 남는 마지막 코스는 소화기 시험실

이었다. 말이 시험실이지 높이가 수십 미터에 건평만도 수백평은 족히 되어 보인다. 실제 소화시험을 위해 NFPA 등에서 정한 소화시험 모형에 점화를 시키자 대단한 규모의 화염이 일어났다. 그 엄청난 화력을 3.3kg 소화기 1대로 소화시킬 때 소화 기구의 소화 능력과 필요성을 한층 더 느끼게 했다.

강의중 “불은 최초 5분이 중요하고, 전쟁은 최후 5분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떠오른다.

대전 지역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방재시험연구소 견학은 실무책임자 견학으로 만족하지 말고 방재 시설을 책임질 수 있는 경영자, 단체장, 각종 업체의 관리책임자 등에 까지 견학 대상을 넓혀야 하겠다. 여기서 지나칠 수 없는 몇 가지 느낌을 적어 두고자 한다.

우리 나라의 모든 건축주들은 다른 시설에의 투자는 후하면서도 유독 방재 시설에는 왜 그리도 인색한지?

나는 유익한 견학이 되었다고 몇번이고 되뇌인다. 귀송 버스내에서의 간단한 오락 시간을 포함한 이번 방문은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방문객 모두에게 상호 친목과 정보교환의 장으로서 더욱 더 값진 견학 시간이었음을 잊지 못하게 했다.

끝으로 견학을 배려해 주신 한국화재보험협회 임직원 및 관계인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

1993. 11. 29.